



# 국제 리뷰

-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 · 경제사회인문연구회(NRCS) 합동 컨퍼런스 참석 및 파리 주제 여성관련 기관 방문기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스웨덴 여성당, 공당(公黨)으로의 여정: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홍희정 |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홍성현 |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연구원

##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 · 경제사회인문연구회(NRCS) 합동 컨퍼런스 참석 및 파리 주제 여성관련 기관 방문기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년 6월 본원 연구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과 경제사회인문연구회(NRCS)의 합동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이번 합동컨퍼런스는 2014년 5월 서울에서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과 경제사회인문연구회(NRCS)의 합동 학술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다. 본원에서는 이명선 원장,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부연구위원, 황애리 행정원이 참석하였으며 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도 참석하였다. 또한 본원 연구진은 파리 방문을 계기로 OECD, UNESCO, 프랑스 사회문제 · 보건 · 여성권익부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선진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 합동 컨퍼런스

2015년 6월 30일 프랑스 국립과학원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에서 프랑스 국립과학원 소속 학자 및 경제사회인문연구회(한국 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소속 학자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의 합동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본 컨퍼런스는 CNRS 인문사회과학국장 파트리스 부들레(Patrice Bourdelais)의 환영사와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강은봉 사무총장의 축사, 이시형 주 OECD 한국 대표부 대사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이어 프랑스 국립과학원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부국장인 샹탈 칸말렉(Chantal KHAN-MALEK)이 CNRS의 국제적 연구협력 활동을 소개하였다. 컨퍼런스는 “세션1: 공간적 불평등 및 역동성,” “세션2: 성주류화,” “세션3: 인간과 기계의 interaction”의 세 주제로 나뉘어 한국, 프랑스의 학자가 발표하고 전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원의 이미정 선임연구위원과 장은하 부연구위원은 “세션2: 성주류화”에서 각각 “한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노력” 그리고 “한국의 재난관리정책에 있어서의 성주류화”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미정 선

임연구위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에 있어서의 한국의 법, 정책 발전 과정과 실행에 대해 심도 분석을 토대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장은하 부연구위원은 자연재해 복구 과정에 있어서의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적 변화 달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재난관리 정책의 성주류화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본 컨퍼런스를 통해 현재 CNRS에서 수행하는 주요 연구 주제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지리학에서 불평등 이슈를 논할 만큼 학계 전반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프랑스 가족 정책은 아동과 양육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에 실행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계와 인간간의 교류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을 통해 기술의 진보 이면에 있는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본원 연구진의 이번 컨퍼런스 참여와 발표를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CNRS 측에서도 본원의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옴에 따라 향후 연구 교류 및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OECD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과의 간담회

2015년 7월1일에는 OECD 개발협력국과 고위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패티 오닐(Patti O'Neill)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장, 에밀리 에스플린(Emily Esplen)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 양성평등정책분석관, 루시 포셰르(Lucy Faucherre)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 양성평등정책분석관 등 OECD 개발협력국에서 젠더 이슈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OECD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은 OECD 회원국의 효과적인 공적개

발원조 수행을 위해 1) 원조통계를 산출하고, 2) 원조효과성을 평가하며, 3) 원조정책 개선을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4) DAC회원국 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원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부서이다. OECD 젠더넷(GENDERNET)은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내에서 양성평등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주요 업무는 1) 주요 국제 개발 아젠다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가 포함되고 증진되는 것의 영향력 행사, 2) DAC 회원국의 양성평등원조 추이 추적 및 산출, 3) OECD회원국의 개발원조에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달성 포함 장려, 4) DAC 동료 검토 과정을 통해 양성평등이 DAC의 핵심 아젠다가 되도록 촉진하는 것 등이 있다. 본원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앞두고 OECD에서 개최된 원조효과성작업반 사전회의의 참석을 시작으로 OECD와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OECD 역시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기여부분에서 본원을 주목하고 있었다.

본 간담회는 에밀리 에스플린(Emily Esplen) 양성평등정책분석관으로부터 OECD 활동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OECD 전체 원조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DAC 회원국들의 양성평등 원조 기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양성평등 원조에 대한 고위급의 인식이 필수적이었으며, 공여국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변화를 유도하는 양성평등적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라고 밝혔다.

패티 오닐(Patti O'Neill)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장은 1990년대 후반 APEC 근무할 당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고, 당시 한국을 분석하였다고 한다. 당시 한국 고용시장이 불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는데, 남성들은 다시 돌아 왔지만, 많은 여성들은 고용시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웠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은 OECD PISA에서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성의 교육열 및 학업성취도도 뛰어나지만, 이것이 여성의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점이 항상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것도 해결해야할 이슈로 보았다.

## UNESCO 본부 양성평등국과의 간담회

2015년 7월 2일에는 UNESCO 본부 양성평등국의 사니예 코랏(Ms. SANIYE GULSER CORAT) UNESCO 양성평등국장장 츠베탄 츠베크프스키(Cvetan Cvetkovski) UNESCO 양성평등국 선임기획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UNESCO는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로서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

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이다. 기구 내 양성평등국(Division of Gender Equality)에서 여아의 교육을 포함하는 양성평등 전반에 관한 주제를 관장하고 있다. UNESCO 내의 양성평등국은 기관 내 모든 프로그램에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여성이 타겟인 프로그램과 UNESCO의 5개 분야에서 성주류화를 도입한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5개 분야: 교육, 자연과학, 사회인문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본원과 UNESCO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바 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UNESCO 총회에 역대 원장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본원 이명선 원장은 2015년 6월 UNESCO 한국위원회 인문사회 · 자연과학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본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교육 관련 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본원은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방안, 교과과정 내 양성평등 촉진, 성인지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 훈련 개발,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여학생 교육 실태, 다문화 가정 내 교육 복지 증대,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주제에 있어서 여성과 교육에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제언을 제공해 왔음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UNESCO(방콕)와 MOU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한 2013년과 2014년의 본원의 국제 공동협력연구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사니예 코랏(Ms. SANIYE GULSER CORAT) UNESCO 양성평등국장은 UNESCO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양성평등국은 UNESCO 내 모든 프로그램에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이 타겟인 프로그램과 UNESCO의 5개 분야에서 성주류화를 도입한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UNESCO에서 착수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양성평등적 관점을 도입해야 하며 현재 기관 내에 양성평등활동계획(2014 - 2021)이 수립되어 있다.

2007년 34회 UNESCO 총회에서 양성평등을 2008년-2013년 중기 전략의 글로벌 우선순위 중의 하나로 채택함으로써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우선순위는 아프리카임을 소개하였다. 이 두 글로벌 전략은 2013년에 갱신되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부임한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사무총장은 양성평등 이슈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부임한 이후 양성평등을 UNESCO 내의 매우 중요한 정책적 분야로 끌어 올린 인물이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2013-2017) 반기문 이후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양성평등국은 또한 전세계적으로 두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라발라, 다른 한 곳은 킌사샤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츠베탄 츠베크프스키 (Cvetan Cvetkovski) UNESCO 양성평등국 선임기획관은 한국의 여가부 인턴제도에 감사함을 표명하였다. 현재까지 약 4명 정도의 한국 인턴들이 양성평등국에서 일했고 매우 훌륭한 인재들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프랑스 사회문제 · 보건 · 여성권익부와의 간담회

2015년 7월 3일에는 프랑스 사회문제 · 보건 · 여성권익부를 방문하여 오로르 샤도네(Aurore CHARDONNET) 여성권익부 국제협력담당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샤도네 국제협력담당관은 프랑스에서 여성권익(women's rights)은 매우 정치적인 이슈임을 언급하였다. 오랜 기간동안 여성부처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2-2014년에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을 포함하는 고위급의 의지로 여성권익부가 단독으로 수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권익을 포괄하는 “포괄적 불평등 법(framework legislation)”이 2014년에 통과됨으로서 단독부처에서 한 단계 낮아지면서 사회문제 · 보건 · 여성권익부 통합되었다. 사회문제 · 보건 · 여성권익부는 장애, 가족, 여성의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여성권익부는 빠스칼 부아파르(Pascale Boistard) 차관(Minister of State)의 리더십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본부에는 30-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지방마다 포컬 포인트가 있다. 따라서 전체 인력 규모는 70명 정도이다.



여성권익부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경제활동, 남녀평등 고위자문위원회(High Council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의 세 개의 자문 기관이 있다. 오로르 샤도네(Aurore CHARDONNET) 여성권익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 중 남녀평등 고위자문위원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직접적인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5명의 상임직원과 200명의 비상임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 연구자들은 학자, 노동조합,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 공무원 등 각 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가 요청하는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한다. 최종 집필은 연구소의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프랑스의 주요 여성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프랑스는 아일랜드에 이어 유럽에서 2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출산율 유지에는 다음 정책이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첫째, 정부에서 지급하는 가족 수당이다. 프랑스는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으로 영향이 적으며, 가족 수당은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다. 둘째, 잘 갖추어져 있는 보육 시설과 정

책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 드물며 신생아 때부터 만 3세까지는 탁아소에 갈 수 있고, 2-3세에는 “motherhood school”을 갈 수 있고, 3세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모성휴가는 16주이며 유급이다. 첫 6주는 산전 휴가로 사용 가능하다. 부성휴가는 연속 11일이며 세 번째 자녀부터는 여성은 26주, 남성은 18일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주요 정책이 실행 중이다. 첫째, 일가정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부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3살 이하의 아기를 둔 두 부모 중 한 명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직장 복귀에 대한 조건이 없음). 첫 번째 자녀의 경우 6개월까지 가능하고, 두 번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가능하다. 둘째, 육아휴직이다. 이는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3년까지 쓸 수 있으며 휴직 후 같은 직급으로 복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은 가족 내 전통적 남녀 역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통 엄마가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여성 중에서도 저임금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 두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최대 2년을 양 부모 중 한 쪽이 사용하고, 나머지 1년은 다른 부모가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정되었다.

샤도네 국제협력담당관은 남녀임금격차에 대해 프랑스 정책 중 발전이 더딘 분야임을 밝혔다. 현재 임금 격차는 27%에 달한다고 한다. 여성들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은 이유이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되도록 관리자급과 고위급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높지만 여성은 주로 파트타임, 서비스업종,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며 직업별 성불균형이 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프랑스의 여성정치참여율은 2015년 현재 26%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 고위직에서 여성이 많이 부족하다. 프랑스에는 할당제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정당리스트에 여성이 없으면 penalty가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존의 두 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되, 선출 인원은 그대로 2명으로 유지하면서 1명의 여성, 1명의 남성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의 여성임원률은 아직 낮은데, 사기업 및 공기업의 이사회에 4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2005년 약 8%이던 여성임원의 비율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여 2015년 현재 32%에 이르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EU에서도 유사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14년 남녀의 불평등을 모두 포괄하는 법으로써 양성평등법(Law on real gender equality)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양성평등에 있어 통합적이고 크로스섹터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즉, 모든 정책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통합시키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남녀불평등, 문화 및 성 역할 고정관념(특히 스포츠) 그리고 남성 정책이 포함된다고 한다.

프랑스 여성부는 한국의 양성평등적 관점을 도입한 교과서 개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여성부는 현재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교과서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 반영을 위해 대화하고 있으나, 프랑

스의 경우 국정교과서가 없고, 교과서를 제작하는 편집자들이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토로하였다.

이번 파리 출장은 다방면의 선진 기관들의 연구 및 정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더불어 이들은 한국여성정책의 빠른 변화와 한국인들의 열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상호 학습의 기회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들 기관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원의 선진화와 한국여성정책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스웨덴 여성당, 공당(公黨)으로의 여정: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홍 희 정 |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홍 성 현 |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sup>1)</sup> 연구원

## 1. 들어가며

2015년 6월 말의 어느 아침, 스톡홀름 근교의 뉘네스함(Nynashamn)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항구로 이어지는 좁은 2차선 도로는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로 꽉 찼고, 여객선 대합실도 이른 배를 타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된 스웨덴 최대의 정치 박람회인 알메달렌(Almedalen)에 참가하기 위해 고틀란드 섬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알메달렌 공원에서 시민당 연설 장면

올해로 47주년을 맞는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는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인 올로프 팔메(Olof Palme)로부터 시작한다. 1968년 고틀란드에서 휴양 중이던 팔메 총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웨덴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한 즉흥 연설이 알메달렌의 시작이었다. 이후 사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도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의 알메달렌이 탄생했다.

알메달렌이 개최되는 고틀란드 주도 비스뷔(Visby) 시는 인구 2만 3천 명의 작은 도시지만, 정치 박람회 기간만큼은 매우 많은 사람으로 북적인다. 이곳에는 모자, 티셔츠, 뱃지 등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부터 그저 지역 축제를 즐기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다양한 토론과 볼거리가 등장하는 이곳은 이제 무거운 정치 행사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지역축제로써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양한 홍보 부스 중에서도 천막부터 구성원의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온통 핑크색으로 도배된 여성당

1)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CIPS)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웨덴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아 교육·연구·출판 및 국제회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재단이다.

(Feminist Initiative)이 눈길을 끌었다. 소녀적 감성을 물씬 풍기는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당은 2005년 설립 이후 꾸준히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차기 의회 진출이 유력시 되는 정당 중 하나다. 페미니즘이라는 특수성을 표방한 정당이 보수적인 스웨덴 사회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공당으로 자리 잡은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여성당의 발전 과정을 통해 여성당이 어떻게 특수성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여성당의 시작과 발전

‘스웨덴은 지금까지 양성평등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왔지만, 남녀 간의 진정한 평등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여성당은 지난 2005년 공식 출범했다. 좌익당의 전 당수인 구드룬 슈만(Guudrun Schyman)과 일부 여성계가 연합하여 탄생한 여성당은 스웨덴 사회에 만연한 기존 비페미니스트 성향<sup>2)</sup>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스스로 독자적인 페미니스트 정당을 만들어 현재의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다양한 페미니스트의 견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Feminist Initiative, 2006).

여성당 초기 스웨덴 국민들은 상당수 이에 호응했다. 설립 후 1년 동안 약 1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문경희 · 전경옥 · 김미성, 2007). 여성당은 이 여세를 몰아 2006년 총선 참여를 선언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약 0.68% 획득에 그쳐 의회 진출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2008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2%의 지지를 얻어 2번째의 선거에서도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계속된 지지를 상승으로 2010년 스웨덴 총선에서 의회 진출을 기대하였으나 또 다시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2014년 5월에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5.5%를 획득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유럽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4년 스웨덴 총선에서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4% 이상 득표로 의회 진출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 3.1%에 그쳐 자국 의회진출은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수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성당은 여전히 꾸준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수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 3. 여성당의 기본 이념과 보편성의 추구

여성당은 현 사회를 남성과 기성권력이 지배하는 불평등한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당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Feminism for alla)’을 모토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야말로

<sup>2)</sup> 여성당은 스웨덴의 사회 구도가 이미 남성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런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지 않는 한 진정한 양성평등은 있을 수 없다는 급진적 주장을 제기하였다.



여성당 대표 구드룬 슈만의 실시간 토론 장면  
(스웨덴 공영 방송국 부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당의 주요 공약은 양성평등한 임금체계, HBTQ(homosexual, bisexual, transsexual and queer persons) 등 성(性)과 관련된 차별의 제거, 가사노동의 경제적 보상, 남성의 폭력 배제 등이다(Feminiskt initiativ, 2014). 이들 공약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면서도 인간의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좌파성향의 정치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한 매니페스토(manifesto)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종차별주의를 지양하고,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연혁, 2014).

기존 정당과 다른 여성당의 파격적인 주장은 도시여성, 고학력 전문직 남성 등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과 명확한 지지계층의 존재는 초기 여성당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나, 의회 진출을 위해 스웨덴 국민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는 선거 때 마다 나타나는 낙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의회 진출에 실패한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여성당의 젠더 이슈가 여전히 스웨덴 국민의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여성당의 역할에 대한 여성계 내에서의 이견과 현 여성당과 기존 정당 내 여성조직과의 갈등도 여성당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정미애·문경희, 2010).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당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정계에서는 향후 총선에서 당연히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젠더이슈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출발한 여성당이 이제는 공당으로써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성당은 선거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꾸준히 선점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동과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의 진정한 평등의 실현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당은 페미니즘의 구현이라는 목표의 특수성을 넘어 평등한 사회 구축이라는 보편적 목표 달성을 지향함으로써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4. 나가면서 - 특수성을 넘어 보편성으로

이상에서 스웨덴 여성당의 출범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여성당이 의회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차기에는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이러한 여성당의 약진 현상의 원인은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좌파 정당인 사민당, 좌익당, 환

경당도 계속해서 양성평등을 주장하였음에도, 여성당이 꾸준한 지지를 받는 것은 여성 권익 증진을 넘어 진정한 양성평등의 구현,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의 철폐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이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당은 이러한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 공천과정에서 여성 비율 쿼터제 의무화, 노동시장에서 남녀임금격차 최대비율 규정, 여성고용 비율 의무화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최연혁, 2014). 이른바 여성당은 특수성에 대한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공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고 의회 진출 등을 통해 사회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제 여성당은 급진적인 소수정치 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소수를 대변하는 공당으로써 활약할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여성당이 당당히 의회에 입성하여 다른 여러 정당과 더불어 알메달렌 광장에서 자신들의 이상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 고 · 문 · 헌

- 문경희 · 전경옥 · 김미성(2007), 제도화된 여성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2)
- 정미애 · 문경희(2010), 여성정치할당제의 대안과 전망: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과 일본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79호
- 최연혁(2014), 스웨덴 2014년 총선 전후의 정당정치: 좌우블록체제에서 3당 정당체제로의 전환, 스칸디나비아연구
- Feminiskt initiativ(2006), 'Political Platform for a Feminist Initiative', <http://feministisktinitiativ.se>
- Feminiskt initiativ(2014), 'Feminism for alla', <http://feministisktinitiativ.se>